여실지견의 안목 가져야 할 때

현불논단



이성운 교수
동방문화대학원대학

불교의 세계관은 연기론(緣起論)이라 할 수 있다. 이것쯤은 문자를 아는 이라면 누구나 안다. 일체 현상은 모두 상호 인연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 배경을 잘 살펴보면 인과임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5월 12일, 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3년 전 5월 10일경 20대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나, 파면으로 인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다시 21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가 시작된 것이다.

불교는 자기 스스로 지은 행위 곧 업(Karma)에 따라 그 결과인 과보를 받는다는 업보설(業報說)을 말하며, 이를 인과법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지은 행위에 따른 결과를 받는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보라고 붓다는 가르친다. 곧 여실지견(如實知見)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실지견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보고 해석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난다. 같은 사태나 상황에 대해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면 옳고[是] 그름[非]이 달리 보이게 된다. 그래서 시비가 일어난다.

가령 이번 대선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치러지게 되었다고 전임 대통령 측에 책임을 물으면, 그들을 부정하거나 상대 당이 국정을 무력화하여 부득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라 오히려 우국충정이라고 주장하는 식이다.

같은 사태나 상황에 대해 서로 전혀 다른 견해

일체 현상, 상호 인연으로 일어나
국민 대표자, 공정과 상식 갖춰야
인과의 눈으로 살피고 판단해야

나 입장을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한 상황이 국가의 헌법이나 법률 등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적법인가 불법인가를 판단하는 사법체제와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 적법성 여부는 사법 체계로 일차 판단하고, 다음은 선거라는 국민의 선택을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기도 한다. 정치권이나 사법부가 다수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해도, 일부 기득권 세력들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나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선거를 통해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부를 선택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맡기고 있다.

물론 선거 제도가 만능이라 할 수는 없고, 헌법이나 법률만이 국민 위에 군림한다고 할 수도 없다. 왜인가? 정치체제나 헌법 등 법률은 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이뤄지는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대표자가 그 역할을 실행할 때는 공정과 상식에 맞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한 국민은 그들을 소환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자는 이 같은 내외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법화경〉에서는 여래께서 삼계(三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유행경〉에서는 나라의 안녕과 부강을 위해서는 '자주 모여 서로 바른 일에 대해 의논하고, 공명정대하고, 서로 존경해야 한다'는 등 일곱 가지 쇠퇴하지 않는 법을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불자들은 현재 상황이 일어난 배경을 인과적으로 살펴보고 그 상황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공정하고 상식적인지 등에 대해 여실지견의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고정관념 깨뜨리는 지혜의 눈

세간과 출세간



박수호 교수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얼마 전 '실버(Silver) 사회와 불교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가했다. 급속히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 불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기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빠르다는 점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불교 인구의 연령대별 구성에 대한 분석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대 이후 불교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인 고령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개신교의 고령인구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학적 분석 결과는 불교계의 일반적인 인식과 많이 다르다.

사실 불교계에서는 노인 불자가 많고 젊은 불자가 적다는 것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신도 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상식이 된 지 오래다. 그런데 노고청저(老高靑低)의 인구 분포와 연령대와 비례하는 불교 인구의 증가 추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일종의 고정관념이 생겼다. 지금 당장

초고령사회의 불교 역할 모색
'나이 들면 절에 온다'는 궤변
정보의 인과 세심히 살펴야

은 절에 젊은 불자들이 많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면 절에 많이들 올 것이라는 궤변을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곤 한다. 그러나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났다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노인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다. 또 어려서부터 절에 다닌 경험이 없는데 나이 들어서 절을 찾는다는 것이 가능할까? 실제로는 과거에 절에 오던 많은 노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생을 달리했고, 그동안 많지 않던 젊은 불자들이 나이 들어 조사 시점의 노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일련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노인 불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확인한 것이 앞선 인구학적 분석이 보여주는 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그런 억지스러운 고정관념이 생겼을까? 각각의 조사 시점에서 꾸준히 유지되던 노고청저 현상이 만들어낸 착시와 나이가 들면 불교를 찾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이 만들어낸 억지의 인과를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계가 발표되는 시점의 현상에 매몰된 채 그것이 시간의 변화 속에서 어떤 인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실수일 것이다. 그리고 감소 추세를 증가 추세로 돌리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볍게 여긴 안일함이 두 번째 실수일 것이다. 모든 일이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할진대,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불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가당키나 할까?

지금 한국 사회는 온갖 착시와 잘못된 고정관념이 횡행하는 가운데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인과를 지혜의 눈으로 세심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社 說

대선 후보자의 첫 번째 공약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이번 대선은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헌정사상 두 번째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선거운동 기간이 20여 일에 불과하다. 게다가 당선된 후보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곧바로 정부 운영에 나서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검증이 힘들 뿐만 아니라, 취임 후 공약이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는 단계적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이 같은 우려처럼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불교 관련 정책은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상황은 불교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조계종은 4월 24일 정책기획단 정책위원회를 구성했고, 태고종은 5월 15일 정책자문단을 발족했다. 대선 후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불교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기구지만, 정책을 넓고 깊게 논의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조계종은 5월 15일 공개한 '국민 행복 정책 자료집'에서 '공약 이행을 위한 당·정·청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민간 제안 정책은 비록 공약이 되더라도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책임 있는 논의 주체의 부재로 실현되지 않는 사례를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이다.

불교계에는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대선 후보자들은 불교계의 현안을 깊이 들여다보고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하고 실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70주년에 부쳐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5월 12일 열린 기념식에서 중앙신도회는 '신도조직 활성화'의 원년을 선언하고, 3대 핵심과제로 '사회통합 실현' '정신문명 선도' '사회적 역할 확대'를 발표했다.

중앙신도회는 1955년 11월 2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전국신도회로 창립해 1960년대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불교단체로 등록됐다. 2004년 중앙신도회와 통합하고 신도회관을 건립해 활동 기반을 공고히 했으며, 부설법인 (사)날마다좋은날을 설립해 행복바라미 캠페인,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반갑다연우야 의료봉사 등 사회공헌 사업에 앞장섰다.

70돌을 맞은 중앙신도회는 새로운 100년을 향해 다시 뛴다는 계획이다. 교구신도회 및 청년층 포교 활성화를 통해 신도 조직을 공고히 하고, 선명상 대중화를 통해 불교의 핵심 가치를 대중에 알리며 정신문명을 선도해 간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국불교는 미증유의 시대를 맞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와 탈종교 현상으로 신도와 출가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는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 인공지능 등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종교의 신행과 윤리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신도회는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주체가 되어야 한다. 70돌을 맞은 중앙신도회가 역할과 조직을 재정비해 한국불교의 발전을 이끄는 주체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5월 21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5월 21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5월 21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